

지역 매 아리

정읍시,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0여분 동안 시청사 광장에서 2018 합동소방훈련 교육 을 정읍소방서와 합동으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정읍 시청사 본관 건물 4층의 화재과 문서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할 초기대응, 상황전파, 119소방대 화재신고절차, 대피 및 피난 유도 방법 등을 숙지하여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 됐다. 훈련은 화재초기 진화과 본격적인 화재 진압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화재초기 진화는 시 직원의 자체 진압으로 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와 유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대응 진화과 대피가 실시됐으며, 정읍소방서 119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시청의 지휘소방대와 협력하여 본격적인 화재 진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화재진화훈련이 끝난 후에는 정읍시청의 소방안전관리자인 권재현 회계과장의 소화기 사용방법과 지휘소방대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에 직원 스스로 골든타임 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이날 소방훈련 후 김인태 정읍부시장은 강령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과 같은 소방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철저한 사전대비와 안전의식 제고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새만금 현장방문 실시

전병순 부안 부군수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등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8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고 부안군은 전했다.

이날 전병순 부군수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관한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의 브리핑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사업 현장으로 차례로 이동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사업, 새만금 게이트웨이, 잠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및 농생명용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및 농생명용지 공사 현장에서는 바다가 땅으로 변한, 창해상전(滄海桑田)을 실감했으며, 12월 중 공사착수에 들어갈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지역 어디라도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내부접근성 및 외부 접근성을 높여 새만금사업에 가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여성이 행복한 고창 만들기

고창군, 저출산 대응 용역조사 최종보고회 열어 20~30대 출산 우선시책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희망

고창군 20~30대들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유기상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민 출산의식 및 태도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고창군의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선 주민을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 및 일 가정 양립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에 약 6개월 동안 고창군 저출산 현황과 여건 분석 및 정부정책과 우수사례 분석을 하고 고창군 거주 20~40세 미만 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용역결과,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우선 사업 설문 에 '신혼부부 주거지원(27.3%)'을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16.3%)',

'아이돌봄 지원(15.3%)' 순으로 조사됐다. 결국 고창군의 향후 저출산 지원 정책은 현금지원정책보다는 아동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남성은 취업과 직장불안정, 여성은 자녀양육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절반(53.9%)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선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친화적인 직장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는 편이었지만,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31.6%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창군민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39명이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자녀 수는 1.60명으로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1.9%)과 직장과 육아 병행어려움(40.7%)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수행한 전북연구원은 고창군 인구정책 증점추진과제로 ▲결혼 장려를 위한 조혼부부 결혼 축하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고위험산모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지원 ▲출산과 가족친화적 고창군 환경조성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내실화와 여성과 청년취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고창군 2018년 현재 15개 저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창군이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개별사업보다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기상 군수는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을 키우고, '여성이 행복한 고창군'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4차 산업 혁명 이끌어 갈 농업인재 육성

정읍농기센터, 농촌지도 최우수상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현)는 18일에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2018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최우수상과 시상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사업비 7,000만원(도비30%, 시비70%)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는 전북도 14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한 해 동안 추진한 혁신적인 업무처리와 농촌지도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을 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농촌사회, 농업인교육, 농촌자원, 농업경영, 식량작물, 소득기술 등 6개 분야의 10개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각 분야 별로 정부합동평가 지표관리, 농촌지도사업 분야별 평가항목에 따른 추진실적, 예산확보 및 집행관리, 조직관리, 지도공무원 전문화 노력도, 농촌지도사업 홍보실적 및 중앙-도-시군 간 업무추진 협력도 등을 평가 하였으며, 정읍시는 높은 평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시상하게 됐다. 그동안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신기술 보급 및 농업인의 소득과 권

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술지원과에서는 권역별(본소, 북부,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높였으며,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하여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개발에 앞장서 왔다. 또한 매년 단풍미인대학 과정을 운영하여 우수한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 연구회, 강소농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과에서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구축, 작물 맞춤형 토양 양분 관리,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고품질 과실생산, 배리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영력 향상, 신규 작물 지역적응 실증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도·연구를 펼쳐 왔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문재현 소장은 "앞으로 농업의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갈 농업인재 육성과 농업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농업인들에게 편리한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청년농업인과 대화' 진행 의견수렴

권익현 부안군수는 18일 계화면사무소에서 계화드림청년회원 20여명과 '청년농업인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FTA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쏟아지고 농업·농촌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과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농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대화'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확대를 통한 미래농업 선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감(井感) 시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정읍 주요 기관 작은 눈사람 성탄 조형물 설치

정읍시는 연말연시 행정기관을 찾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본청 및 23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작은 눈사람 성탄 조형물을 설치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나선 아이들이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주변 민원인이나 직원들에게도 훈훈함을 주고 있다.

또한, 시는 직원들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민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빅데이터' 관련 전문 도서 3권을 전 부서에 비치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12만 시민복지와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가 본청 및 23개 읍면사무소에 성탄 조형물을 설치했다.

했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 날씨를 키우도록 한 것은 정감(井感)시대 구현의 작은 시작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업무역량을 키우도록 한 것은 정감(井感)시대 구현의 작은 시작이다"고 밝혔다.

고창서 청문실, 고비난성 비위예방 적극 실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연말연시 잦은 모임이 많아 지게 되면서 음주운전(숙취운전), 성비위, 도박 등 고비난성 비위예방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펼쳐가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직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더 놓고 대화나눔'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화의 장 수시 마련과 릴레이 칭찬 타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동행 365일 테마 지정 비위에 방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렴동아리회원 김정수 경위는 "연말모임이 많이 예정되어있는 시기에 비위발생이 없도록 청문기능에서 직

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진정으로 공감해준 덕분에 더 열심히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연말연시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고창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소그룹별 공감의 장을 마련 소통하고 암묵지 일문을 발굴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조직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연말모임이 많은 시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청렴과 격려하는 분위기를 유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두에게 좋은 직장이 되도록 적극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